

귀농·귀촌인 안정 정착 지원

임실군, 소득·생산기반시설 사업 39가구 2억7000만원 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 신축 등 38가구 1억9000만원

임실군이 귀농·귀촌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 추진에 나섰다. 군은 민선 6기에 이어 민선 7에도 귀농·귀촌인의 입실로의 전입을 적극 추진하기 위하여 올해도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도시민 유치를 통한 농촌지역 인구를 늘린다는 방침이다. 군은 지난 8일부터 9일까지 2일간

전북도귀농귀촌지원센터 서울사무소에서 40여명을 대상으로 도시민 상담 및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해 귀농귀촌인의 교육을 현장에서 해결해 줬다. 실제 군은 인구 늘리기 정책을 중점적으로 추진, 지난 2016년에는 537명, 2017년에는 320명, 2018년 504명 등 꾸준한 성과를 내고 있다. 군은 귀농·귀촌인들을 위해 소득사

업 및 생산기반시설 지원사업과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지원해 안정적 정착을 돕는다.

귀농·귀촌인 소득사업 및 생산기반시설 지원사업은 경제작물, 임산물 등 소득에 필요한 사업으로 가구당 최대 1000만원을 지원한다. 주택구입 신축 및 수리 지원사업은 귀촌 거주 안정을 위하여 가구당 최대 500만원을 지원한다.

신청자격은 전입한 날부터 최대 5년 이내 세대주가 신청해야 한다.

군은 2월까지 신청서를 접수 후 귀농귀촌 지원 위원회 심사를 통해 소득사업 및 생산기반시설 지원사업 39가구 2억7000만원과 주택신축 및 수리지원사업 38가구 1억9000만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한편 군은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 및 초보 귀농귀촌인에게 안정적인 준비와 성공적인 정착을 돕고자 전문멘토단을 육성해 귀농귀촌인을 양성하는 큰 성과를 내고 있다.

심민 임실군수는 "귀농·귀촌정착지원인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다양한 지원대책을 마련하는 등 농촌생활의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돕겠다"며 "귀농·귀촌인들이 임실군을 제2의 고향으로 살 수 있도록, 다양하고 맞춤형 정보를 제공해 귀농귀촌인 유치를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임실군이 귀농·귀촌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 추진에 나선다고 22일 밝혔다.

임실군, 납세자 권리보호 한층 강화 | 납세자권리현장 개정

임실군은 납세자들의 권리보호 및 강화를 위해 임실군 납세자권리현장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납세자권리현장은 1997년 9월 제정돼 각종 조세관련 법적사건이나 세무조사의 경우 납세자로서 권리를 알리는데 활용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에는 납세자보호관의 권

리구제 절차 설명의무, 세무 조사 대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 세무 조사 연기·연장 등의 통지를 받을 권리 등 납세자권리보호 관련 법령 개정안을 담고 있다. 또한 납세자가 이해하기 쉬운 문구로 전면 개정해 납세자의 권리를 한층 강화한 내용을 포함했다.

한편 이남재 기획예산실장은 "개정되는 현장을 준수해 납세자의 권리가 정당하게 보장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현재 운영중인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통해 고충민원이나 권리보호에 앞장 서겠다"고 전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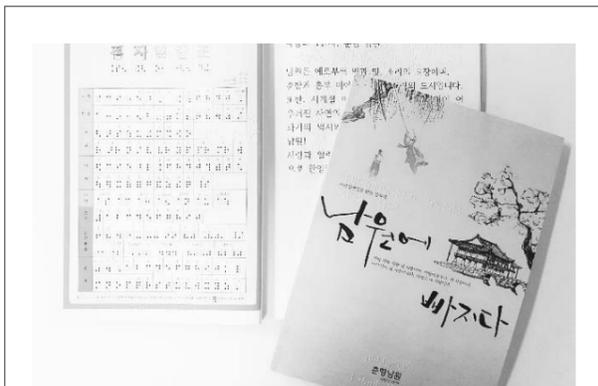
읍면동 지역 노부부·남성 노인들을 위한 통합 건강프로그램

남원시보건소(소장 이순례)가 남성 노인들을 위한 통합 건강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 프로그램은 노인의 신체적, 인지적, 정서적, 사회적 기능의 회복유지 및 증진을 위한 것으로 읍면동 지역 노인부부와 남성 노인 60여명이 참여하고 있다. 참여자 대부분 고혈압, 당뇨, 이상지질혈증 등을 가지고 있어 건강관리가

필요함에 따라 4월과 6월에 4회기씩 매주 수요일 오후에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며, 자세한 사항은 보건소 방문보건담당(620-7960)으로 문의하면 된다. 1,2회차는 노인의 심리적 특성, 노화로 인한 신체변화 건강문제 등의 이해를 돕는 강의와 기억력증진과 심호흡에 도움을 주는 노래교실, 심뇌혈관 질환 예방관리를 위해 공중보건과의

의 질의응답을 통한 교육과 치매예방을 위한 젠기활동 손놀이, 세라밴드를 이용한 근력, 유연성, 평형성을 위한 건강체조를 실시하고, 3,4회차는 체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실내공간을 벗어나 경기장에서 게이트볼 경기와 민속경기(고리걸기, 투호)를 전문 강사와 함께 배운다. /남원=김기두 기자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시각장애인을 위한 남원 관광안내 책자 '남원에 빠지다'

시각장애인들이 알기 쉽게

남원시, 관광 점자책자 발행

남원시는 시각 장애인 관광객을 위해 남원 관광안내 책자 "남원에 빠지다" 점자본자 책자를 제작해 비치했다고 밝혔다.

이 책자는 남원역을 비롯한 8개소의 관광안내시설 (광한루원, 테마파크, 남원역, 실상사, 만민인중, 혼불 문화관, 국악의 성지, 종합안내센터)와 남원시청 안내실 및 주요기관 안내실에 비치된다.

남원시 양선도 주무담당관은 "남원시가 열린 관광지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관광객을 위한 인프라 개선차원에서 점자관광 안내서를 발간하게 되었고, 관광투어객 6000년을 맞는 해에 600만 관광객 유치를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관광객들을 보호하는 관광정책 의원을 확장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문화공간, 민간시설까지 확대

순창군, 문화예술 프로그램 운영 계획 있는

시설 운영자 26일까지 모집... 최대 5000만원 지원

순창군이 민간시설 문화강좌 지원에 이어 문화공간 조성까지 나서며 '문화가 숨 쉬는 순창' 건설에 앞장서고 있다. 군은 90㎡ 이상의 실내공간을 확보하고 문화예술 프로그램 운영계획이 있는 시설 운영자를 오는 26일까지 모집한다고 22일 밝혔다.

이 사업은 점차 늘어나는 문화 수요를 단순히 공공시설만으로는 해소하는 데 한계가 있음에 따라 민간 유휴시설을 지원, 문화공간으로 활용하고자 마련됐다. 접수된 시설은 서류와 현장 실사를 거쳐 내달 7일 선정할 계획이다. 대상 시설로 선정되면 시설 보수비용과 프로그램 운영비를 포함해 최대 5000만원까지 지원된다.

군은 이번 사업이 국내외 경기 침체로 경영활동에 어려움을 겪어가는 관내 소상공인들에게 문화 예술 활동을 통해 경영여건 개선에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기존에 군민들이 밀접하게 이용하던 시설이 문화예술공간으로 변화를 꾀함에 따라 접근성과 함께 친숙함으로 문화예술을 좀 더 가까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실제 직장 내 워라밸 문화확산으로 일과가 끝난 직장인들이 취미생활과 문화 활동에 대한 수요가 지속해서 늘고 있어 사업 추진에 호재로 작용하고 있다고 군은 설명했다.

군은 문화가 함께하는 새로운 트렌드를 반영해 눈이 높아진 관광객 유입을 위한 새로운 기폭제 역할도 수행한다는 계획이다. 황숙주 순창군수는 "순창으로 귀촌하는 예술가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면서 "이들을 활용해 관내 문화예술 분야 수준을 한 단계 높여나가 군민들이 도시 못지 않게 문화 예술 활동을 펼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순창=이원영 기자

지역 매아리

옷칠·같이 교육 수강생 모집

남원시에서는 오는 26일까지 '2019 남원시 옷칠·같이교육' 수강생을 모집한다.

이번 교육에서는 무형문화재 옷칠장 박강용 선생(옷칠 고급반), 대한예술명인 이건무 선생(같이 중급반) 등 해당 분야 최고 전문가들이 강사진으로 포진되어 있어 전문성 있는 수업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교육 일정은 5월 1일 옷칠 초급·고급반 수업을 시작으로 올해 11월까지 2개 분야(옷칠, 같이) 6개반(옷칠 초급·중급·고급, 같이 초급·중급·전통같이)으로 구성해 반별로 매주 1~2회 운영하고, 모집정원은 반별로 6~12명이며, 초급반은 관심있는 누구나 수강신청 가능하고 중급반 이상은 이전 단계 수료자 및 동등자격 보유자를 대상으로 한다.

모든 강좌는 무료강좌로 진행되며(재료비는 수강생 실비 부담), 수강희망자는 신청서를 남원시 일자리경제과에 메일 또는 팩스로 제출하면 되고 접수 문의는 남원시청 일자리경제과(063-620-6367)로 하면 된다. /남원=김기두 기자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서부지방산림청(청장 황인욱)은 특별 사법경찰, 청원산림보호직, 산림보호지원단으로 구성된 기동단속반을 운영해 봄철 산림 내 임산물 불법 굴·채취와 같은 행위 등으로 인한 산림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지난 4월 1일부터 특별단속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중점단속 대상은 봄철 산림에서 이루어지는 산나물·산약초 채취목적의 기획 관광, 입산통제 구역 내 무단 입산행위, 소나무 반출금지구역 내 무단 반출행위 등이며, 해당 행위 적발 시 사법처리 및 과태료 부과 등 관련법령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산불조심기간과 겹치는 기간에 따라 산불예방을 위한 산림 내 화기사용 및 불법소각 단속도 함께 병행한다. /남원=김기두 기자

소방공무원 전문성 강화 교육

남원소방서는 22일 3층 대강당서 직장 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직장훈련에서는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소방시설 장애 발생 대처방법 ▲봄철 산불예방대책 관련 교육 ▲음주 운전 전 예방 및 교통법규 준수교육 ▲자살위험자 소방대응능력 향상 등을 교육했다.

특히, 소방시설 장애발생 대처방법 교육에서는 소방시설관리사 자격을 보유한 이상민 소방장이 강사로 나서서 현장과 연계해 교육을 진행하며 직원들의 만족도를 높였다. /남원=김기두 기자

대한민국 치즈의 수도
임실치즈

별기에 출신 자정환 신부(Didier 'Serstevens')가 국내 최초로 개발 보급한 한국 치즈산업의 원조 임실치즈. 신선한 원유와 40년 이상의 가공기술력으로 만든 임실치즈는 맛이 고소하고 담백하여 어린이, 노약자의 영양간식으로 매우 좋습니다.